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우즈베키스탄 산업현대화 추진현황과 향후 산업전망

목 차

I. 검토 배경	1
II. 우즈베키스탄 산업현대화 추진내용	2
III. 향후 산업전망	9



■ 우즈베키스탄은 2004년 이후 주요 수출품목인 에너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고도 성장세를 유지해 왔음. 그러나 1차 산업에 편중된 수출구조와 낙후된 인프라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011년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현대화 프로그램 추진현황과 향후 산업전망을 검토하고자 함.

I. 검토 배경

- 우즈베키스탄은 2004년 이후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2004~10년 연평균 7%를 상회하는 고도경제 성장세를 지속해 왔으며, 폐쇄경제 체제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도 미미하게 나타남.
- 그러나 1차 산업(에너지, 금, 면화 등)의 수출비중이 총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 원자재 가격의 등락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낙후된 인프라와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자원 생산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가 부진하여 경제 성장잠재력이 부족한 상황임.
- 이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산업현대화를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로 책정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카리모프(I. Karimov) 대통령은 5년에 걸친 산업현대화 정책에 총 5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을 수립했음.
- 2011~15년 산업발전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가 향후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Ⅱ. 우즈베키스탄 산업현대화 추진내용

1. 2011~15년 산업발전 프로그램 개요

□ 개관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9년 이후 외국인투자 유입을 통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9년 3월의 2009~14년 현대화 및 기술증진 프로그램에 이어 2010년 12월에는 2011~15년 산업발전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 2011~15년 산업발전 프로그램은 2009~14년 현대화 및 기술증진 프로그램을 대체

- 2011~15년 산업발전 프로그램은 산업의 지속적인 균형 발전, 수출 잠재력 및 산업경쟁력 확보 등을 목표로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고 신규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동 프로그램의 대상 프로젝트는 추진 단계에 따라 ①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프로젝트, ② 사업화 단계(elaboration stage)의 신규 프로젝트, ③ 예비 단계의 유망 프로젝트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음.

□ 프로그램 추진 규모

- 동 프로그램에 따라 2015년까지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프로젝트(259개)에 300억 7,400만 달러가 투자될 예정임.

- 분야별로는 신규 건설 분야에 230억 5,000만 달러, 기존 생산기지 현대화 분야에 52억 4,200만 달러 및 신기술장비 구축에 17억 8,300만 달러가 투입될 계획임.

- 그 외 사업화 단계의 신규 프로젝트(99개) 예상 투자규모는 65억 달러 수준으로, 신규 생산시설 확충(43억 달러)과 현대화 및 기술력 제고(22억 달러) 분야에 투자가 유치될 예정임.



- 예비 단계의 유망 프로젝트(158개)에는 약 11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며, 에너지, 화학, 제철, 경공업, 건설자재, 기계류 산업에 투입될 전망이다.
- 2011~15년 산업 발전 프로그램에 포함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수입되는 장비, 시설 및 부품 중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2016년까지 관세가 면제됨.

□ 기대효과

-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5년 우즈베키스탄 산업구조는 2010년 산업생산의 38%를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이 63.2%까지 확대되고 관련 수출 비중도 51.1%에서 71.8%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연료 및 에너지 분야 생산비중은 29%에서 20.7%로, 비철금속 생산은 11%에서 8.2%로 축소되는 반면, 기계류 생산비중은 16.7%에서 20.4%로, 경공업은 12.8%에서 15.6%로, 식품업은 11.8%에서 17.2%로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동 프로그램 관련 모니터링과 조정 업무는 ‘전략적 투자사업 관련 국제기구 및 차관 제공국 담당 협력위원회’가 전담하며, 아지모프(Azimov) 제1부총리가 해당 기구의 수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주요 산업별 현대화 추진현황

(1) 전력산업 현대화

- 정부는 2011~15년 중 전력부문 현대화를 위해 총 50억 달러 규모의 48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임.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전력 생산용량은 현재의 12,320MW 수준에서 14,723MW 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전력 부문 현대화 프로젝트를 통해 총 2,403MW(화력 2,243MW, 수력 160MW)의 발전용량을 제고하고, 1,000km의 송전선과 2,118MVA(Mega Volt Ampere) 변전설비를 확충할 계획임.



- 우즈베키스탄 전력산업 부문을 총괄하는 국영기업 우즈베크에너지(Uzbekenergo)는 발전설비와 보수 및 현대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 증대를 목적으로 총 37개의 발전소 건설 및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함.
 - 우즈베키스탄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발전소의 대부분은 1960~70년대 구소련 시절에 건설되어 노후화로 인한 전력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등 에너지 효율이 크게 낮음.
-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86%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현대화 프로젝트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수력발전 부문의 현대화 프로젝트는 검토 단계에 있음.
 - 총 14개의 수력발전소 건설 및 현대화 프로젝트가 검토되고 있으며 정부가 대기오염 감축 및 전력생산 효율성 증대를 위한 수자원 활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수력발전 부문의 전망이 밝은 편임.

<표 1> 전력산업 현대화 관련 주요 프로젝트 내역

프로젝트명	내 용
나보이(Navoi)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 476MW 규모의 복합화력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2012년 완료 예정 - 스페인과 터키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수주
타슈켄트(Tashkent)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 375MW 규모로 착수되어 2014년 완공 예정 - 슬로바키아와 캐나다 기업의 컨소시엄이 수주 - 슬로바키아 기업이 위조된 은행 보증서 제출로 고발되어 현재 프로젝트 중단 중
탈리마잔(Talimarjan) 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	- 740~800MW 규모의 2개 복합화력발전소 증설 - 총 투자 예상액: 7.1억 달러(ADB와 JICA 지원 예정)
노보-양그렌 복합화력 발전소 현대화	- 1~5호 복합화력발전시설의 연료를 천연가스에서 석탄으로 전환하는 작업 시행 중 - 6~7호기도 3억 달러를 투자하여 2014~16년 연료 전환 추진
타히아타슈(Tahiatash) 발전소 현대화	- 2012~18년 3.3억 달러를 투입, 동 발전소 현대화 추진
자동전력소비량 측량기 설치	- 전력소비량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자동전력소비량 측량기 설치 - 송전센터 등 기업과 주택에 총 440만 개 설치 예정 - 2009~12년 3.7억 달러 투자 계획
송전선 현대화	- 2010~15년 3.5억 달러를 투입, 23,490km에 달하는 송전선 현대화 추진
풍력발전 시설 시범사업	- 2011년 190만 달러를 투자하여 타슈켄트주(차르박 호수) 인근에 0.75MW 규모의 풍력발전소 시범 건설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타슈켄트사무소 및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2) 교통인프라 개선 및 상하수도 시설 현대화

-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010년 12월 21일에 발표한 대통령 결의안에 따르면 2011~15년 중 총 69.3억 달러를 투자하여 도로, 철도, 항공운송 등 물류망 개선 및 상하수도 등 인프라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도로 및 교통 시스템 개선(11개 프로젝트)에 약 33억 달러, 철도망 개선(14개)에 약 17억 달러, 항공 부문(14개) 개선에 약 6.5억 달러, 상하수도 처리 시설(39개) 개선에 10.6억 달러, 통신(5개)에 2억 달러, 시내교통(2개)에 0.2억 달러를 각각 투자할 예정임.
- 소요자금은 정부 예산을 비롯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슬람개발은행(IDB), 중국수출입은행 등의 차관 및 대출 등을 통하여 조달할 계획임.

□ 도로 인프라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1~15년 약 33억 달러를 투자하여 2,360km의 고속도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도로 부문 투자액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소요자원 33억 달러 중 17.9억 달러는 도로펀드(Republican Road Fund)*에서 부담하고, 그 외 15.1억 달러는 국제 금융기관에서 조달할 계획임.
- * 도로펀드는 2003년 재무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펀드 대표는 재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내각에서 임명됨. 주된 재원은 기업의 도로펀드 부담금(2011년 기준 기업 매출액의 1.5%)에서 충당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연간 220~270km의 주요 도로가 건설되고 3,400~3,750km가 보수되고 있음.
- ADB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공공도로의 60% 가량은 10% 이상 균열되어 있는 상태로, 이러한 열악한 도로 상황은 해당 부문에 투입되는 자원 규모가 GDP의 1% 수준에 불과한 데 기인함.



□ 항공운송 인프라

- 우즈베키스탄은 11개의 민간공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부하라, 우르겐치, 테레미즈, 나보이 등 6개 공항은 국제공항임.
- 공항 내 카페 운영 등 일부 아웃소싱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별도 조직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국영항공사인 우즈베키스탄 항공(Uzbekistan Airways)에서 담당하고 있음.
- 국제물류 허브로 육성을 추진 중인 나보이 공항은 대한항공이 2009년 1월 부터 위탁경영 중임(의무기간: 5년, 5년 연장 가능).
- 해상을 접하고 있지 않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항공이 국제 교통망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항공 서비스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 항공기의 현대화: 보잉, 에어버스 등 현대 항공기 기종의 도입 확대
- 타슈켄트 공항 및 지역 중심 공항의 현대화: 여객·화물 수송량 확대 및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공항 인프라 현대화 추진

<표 2> 항공운송 인프라 현대화 관련 주요 프로젝트 내역

단위: 백만 달러

프로젝트명	총 투자비	'11~15 중 투자비	주요 재원
나보이 공항 항공유 저장시설 건설	35.0	35.0	FRDU ^주
나보이 공항 여객청사 현대화	5.5	5.3	UAE 원조
부하라 공항 국제선 (신)여객청사 건설	14.7	4.5	자체
타슈켄트 공항 국내선 (신)여객청사 건설	46.5	29.0	자체
테레미즈 공항 여객청사·활주로 현대화	6.5	6.5	독일·자체
누쿠스 공항 활주로 연장 등 현대화	7.7	6.2	자체
안디잔 공항 활주로 현대화	15.8	7.4	자체
카르쉬 공항 활주로 표시등 현대화	2.0	2.0	자체
나망간 공항 활주로 현대화	1.8	1.8	자체
페르가나 공항 활주로 표시등 현대화	0.1	0.1	자체

주: 우즈베키스탄 재건개발펀드(Fund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Uzbekistan)

자료: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 정부의 도로, 철도 등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산업현대화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 물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됨.
- 우즈베키스탄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로,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시설이 주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물류거점 국가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음.
- 2010년 중 타슈켄트에 위치한 앙그렌(Angren) 국제물류센터를 통해 총 400억 톤의 화물이 운송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가 전체의 화물 운송량을 2020년까지 600억 톤 수준으로 증대시킬 계획임.

□ 상하수도 시설 현대화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1~15년 중 상하수도 시설 현대화에 10.6억 달러(39개 프로젝트)를 투입해 상하수도 개선 및 취수시설 재건 등을 추진할 계획임.

<표 3> 상하수도 현대화 관련 주요 프로젝트 내역

프로젝트명	내 용
타슈켄트 농촌지역 취수시설 재건	- 중국 수출입은행의 차관으로 2011년까지 진행 예정 - 농촌지역 용수 공급을 위한 취수시설 재건 및 수도관 설치에 각각 2,690만 달러 및 3,500만 달러 투입
수르한다리아(Surkhandarya) 상수도 및 위생시설 재건	- ADB 3천만 달러, 우즈베키스탄 정부 800만 달러 투자 예정 - 2014년 완료 예정 - 자르쿠르간스크, 시리아시스크, 쿰쿠르간스크 지역 총 27개 거주지의 상수도 개선 예상
테르메즈(Termez) 하수도 시스템 복원	- ADB 1,800만 달러 투자 예정 - 기존 상하수도 개선 및 신규 간선 상수도 및 하수도 건설
시르다르야(Syrdarya) 상하수도 개선	- World Bank 8,800만 달러 지원 예정 - 시르다르야 지역 거주자 약 34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

자료: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부(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Investments and Trade).



(3) 섬유산업 현대화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1~15년 섬유 분야의 약 422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총 사업비는 약 26.2억 달러 규모임.
 - 주요 프로젝트별 사업내용은 ①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프로젝트는 11.4억 달러(229개), ② 사업화 단계(elaboration stage)의 신규 프로젝트는 2.4억 달러(117개), ③ 예비 단계의 유망 프로젝트는 12.4억 달러(76개) 규모에 달함.
-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프로젝트 중 27개 프로젝트(7.3억 달러 규모)는 우즈베키스탄 국영 경공업성(Uzbekengilsanoat) 주도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고, 11개 프로젝트(0.84억 달러)는 부실기업을 인수한 상업은행 주도로, 그 외 191개(3.3억 달러)는 지방정부 차원의 소규모 프로젝트임.
- 정부는 섬유산업 현대화를 통해 면사 및 면직물 생산 확대 뿐 아니라, 최종 완제품 및 양품류의 생산 증대를 추진하고 있음.
 - 2010년 대비 2015년까지 생산량을 면사는 2.4배, 면직류는 2배, 의류는 2.6배, 양말류는 8배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섬유산업을 포함한 경공업이 총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2.8%에서 2015년 15.6%까지 제고할 계획임.

(4) 금융시장 선진화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0년 11월 26일 금융부문 선진화 관련 대통령령에 따라 2011~15년 5개년에 걸쳐 금융시장 선진화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음.
 - 주요 정책방향은 은행의 자본 증대와 민간자본 유치, 자산건전성 제고 등을 통해 바젤(Basel) 위원회의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금융환경을 개선하는 것임.
 - 또한 상업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금융부문 우수인력 양성, 증권시장 현대화 등의 계획도 포함하고 있음.



<표 4> 금융산업 선진화계획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은행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보급률 확대 - 국제금융기구와 외국정부의 기업우대대출 및 무상지원 유치규모 확대(5년간 5.6억 달러 유치) - 인터넷뱅킹 서비스 확대 - 프라이빗뱅킹(private banking) 관련 법률, 신용정보 교환에 관한 법률, 저당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 2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한 별도 절차 마련
비은행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 규모 제고 (일반 보험: 150만 유로, 의무보험: 300만 유로, 재보험: 600만 유로) - 상품거래에 관한 법률, 투자 및 뮤추얼 펀드에 관한 법률 등 제정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타슈켄트사무소.

Ⅲ. 향후 산업전망

□ 외국인투자 유치가 산업현대화 성공의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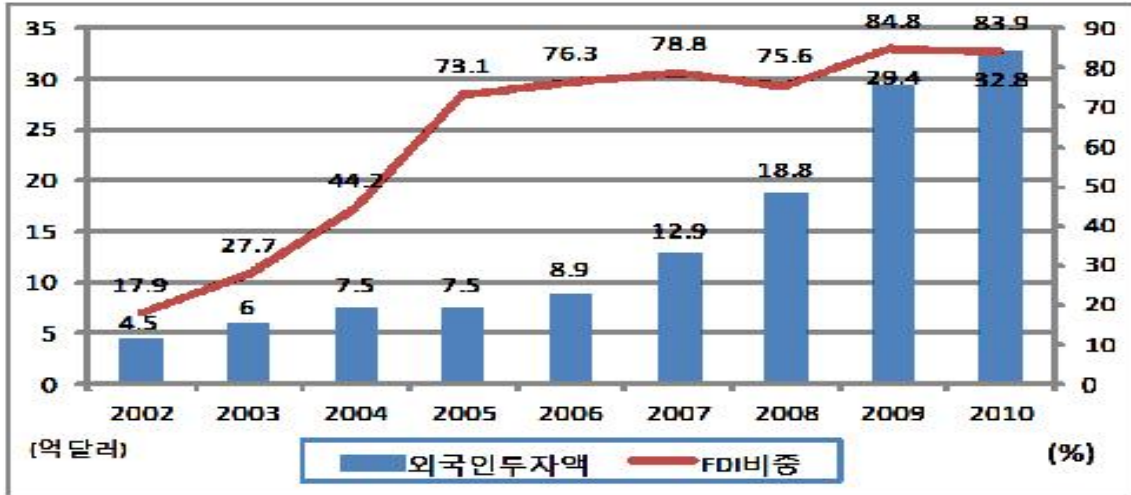
- 이 프로그램의 재원 조달 계획에 따르면 전체 투자액의 68%인 204억 5,000만 달러를 외국인투자 및 국제 금융기관이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투자 유치가 프로그램 성공의 관건인 것으로 분석됨.
- 우즈베키스탄은 정부의 개혁, 개방의지 부족과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CIS 국가 중 투자유입이 가장 부진한 국가이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2004년 이후 원유, 천연가스 등 교통 인프라 분야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등의 외국인투자가 급증했음.
 - 2006~10년 주요 FDI 유입 산업: 교통 인프라(29.3%), 에너지(21.9%), 통신(15.8%), 지질탐사(14.2%), 경공업(6.2%) 등
 - 주요 FDI 투자국(2010년): 중국(53.4%), 러시아(23.2%), 한국(5.2%), 네덜란드(4.8%), 미국(2.1%) 등



< 그림 >

우즈베키스탄 외국인투자 유입 추이

(단위: 억 달러, %)



자료: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부(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Investments and Trade).

- 외국인직접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에너지(원유·천연가스 가공 및 개발) 분야 외에 투자유치 유망 분야는 기계 및 자동차, 의약 및 바이오, 화학, 식품가공, 전기전자 산업 등이며, 우즈베키스탄 입장에서도 동 분야에 대한 산업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임.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 기대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1~15년 산업발전 프로그램 추진과 더불어, 2011년 1월 외국인투자 법령을 개정하는 등 외국인투자에 보다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권 보호 및 불가침 보장
 - 외국인 투자 후 10년 동안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령개정 적용 배제
 - 외국인 투자자산은 국유화 대상에서 제외
 - 수출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소득세 및 재산세 최대 50%): 기존에는 외국인투자시 면세혜택을 투자금액 최소 미화 30만 달러 이상일 경우로 한정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면세기간이 차등 적용되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외국인투자 기업은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면세혜택 적용



- 전략적 투자유치 산업 및 투자규모 1,5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자협정서 체결을 통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
- 우즈베키스탄은 외국기업의 본국에 대한 이윤 송금이 법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송금 지연, 환전 지체 등의 장애요인이 발생하는 등 법령 및 제도 개선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이 시급함.
- 우즈베키스탄의 투자환경을 항목별로 평가한 기업경영여건(Doing Business, IFC) 순위는 183개국 중 150위에 불과

□ 물류중심지로 발전 가능 전망

- 우즈베키스탄은 전력 및 교통인프라(도로 및 항공운송) 현대화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물류산업 인프라 개선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8년 이후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FIEZ) 조성계획을 추진하며 외국인투자 유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나보이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물류 부문 강화 및 중앙아시아 최대 물류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내륙국가로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등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국제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관련 인프라 현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물류중심지로서의 발전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됨.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책임조사역 허정옥
3779-5708, johuh@koreaexim.go.kr